

배우 김상중씨,
한우 광고모델로 선정



국악소녀 송소희양의 바통을 이어받아 배우 김상중씨가 올해 한우자조금 광고모델로 선정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5년 한우자조금 광고모델로 배우 김상중씨를 선정하고 최근 광고촬영도 마쳤으며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파를 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우 김상중씨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한우의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져 모델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방영되기 시작한 KBS 대하드라마 <징비록>에서 주인공 류성룡역을 맡고 있어 청렴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중씨가 맡고 있는 류성룡은 조선중기 관료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 군관인 이순신과 원균을 천거했으며 이순신으로 하여금 임진왜란 당시 열세였던 조선의 전세를 역전 시키는데 공을 세웠다. 또한 죽을 때까지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 '조선의 5대 명재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우자조금은 올해 광고 컨셉은 '한

우사랑 나라사랑'이란 문구로 상업광고가 아닌 캠페인 광고로 추진키로 했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시사프로그램 명MC로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김상중씨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올곧은 성품으로 우리 한우에 대한 이미지 향상은 물론 한우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중씨가 출연한 '한우사랑 나라사랑' 광고는 오는 4월 1일부터 방송되며 3월 27일 한우 홍보대사 위촉식도 갖는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5. 03. 18]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에
이근수씨 선출

한우자조금 제3기 후반기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됐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3월 12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신임 집행부를 선출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근수씨 <사진>가 선출됐다. 이근수 신임 위원장은 총 172표 중 89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대의원회 의장에는 단독후보로 추대된 김충완씨가 선출됐다. 감사에는 현 황인식 감사와 신건호 감사가 연임됐다. 결원된 전북지역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에는 소순배씨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5. 03. 13]

한돈 대표할 새 캐릭터 〈한도니〉 공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2015년 한돈을 대표할 새로운 캐릭터인 ‘한도니’를 ‘한돈닷컴(www.han-don.com)’을 통해 발표했다.

새롭게 선보인 한도니 캐릭터는 한돈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개발됐으며, 우리 땅에서 키워 건강하고 신선하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우리 돼지 한돈의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한도니는 스토리텔링 시대에 맞게 ‘행복한도니’, ‘건강한도니’, ‘화목한도니’, ‘용감한도니’ 등 총 4가지캐릭터로 개발됐다. 각각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징들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한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소비 홍보물 제작 및 이벤트 행사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의 경직된 이미지의 캐릭터에서 벗어나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캐릭터를 제작하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 한도니의 다양한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우유자조금 모델에 아이돌 ‘B1A4’ 선정

우유자조금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우유를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제작해 실질적인 우유 소비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아이돌그룹 B1A4를 모델로 선정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광고 모델과 광고 콘티를 선정했다.

이번 캠페인 테마는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우유밖에 없습니다’를 캠페인 슬로건으로 어떤 식품도 대신할 수 없는 우유의 절대 가치 전달을 의미한다.

이날 자조금관리위원들은 “청소년들에게 우유가 필수영양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우유 섭취량은 평균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유섭취를 늘릴 수 있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시간대에 집중된 광고 방영시간 편성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축산경제 이혜진 기자 [2015. 03. 18]

육계협회 정병학 회장 연임 총회서 만장일치 재추대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이 재신임을 받으며 제1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육계협회는

지난 3월 4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협회 회장에 정병학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정병학 회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산업과장을 거쳐 협동조합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상근부회장직을 연역임했으며, 제13대와 제14대 육계협회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정병학 회장은 앞으로 2년간 육계협회를 이끌게 된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5. 03. 06]

사슴협회, 청계산서 시산제 · 녹용 홍보활동



한국사슴협회(회장 정유환) 산행홍보단은 지난 3월 1일 서울 청계산에서 녹용홍보행사(사진)와 함께 시산제를 가졌다.

이날 정유환 회장은 “우리 협회 산행홍보단의 활동은 정말 대단하다. 그 어느 단체의 서포터즈나 홍보요원보다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모

습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시산제를 지낸 만큼 홍보단 모두 을미년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산행하시고, 우리 양육산업도 날로 번창하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2015. 03. 04]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에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 추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에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사진)이 추대됐다. 축단협은 지난 3월 20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

를 갖고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을 신임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병규 회장은 “축단협 협의회장은 모든 축종을 아울러 현안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1년 동안 FTA와 구제역, AI 등 안팎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축산업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향후 축단협의 운영 방향과 관련 이 회장은 “특정 축종에만 치우치지 않고 당면한 모든 축산현안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축단협이 축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산자조금연합,
2015 축산 인식개선 공동캠페인
착수보고회 개최



축산자조금연합(이하 자조금연합)은 3월 24일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9개 축종자조금(계란, 닭고기, 사슴, 양봉, 오리, 우유, 육우, 한돈, 한우) 및 농협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축산 인식개선 공동 캠페인'의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자조금연합은 “신선에너지, 우리축산”이라는 핵심 컨셉 아래, 우리 축산물의 ‘신선함’과 ‘건강’을 핵심 키워드로 우리 축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우리 축산에 대한 오인지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공중파 TV 캠페인 광고를 시작으로 추진될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우

리 축산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방송과 신문 기획을 통해 우리 축산에 대한 가치 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신선장화캠페인’을 통해 축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자정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축산업을 대표하는 깨끗한 장화를 컨셉화한 ‘신선장화캠페인’은 지난해 연말부터 AI와 FMD(구제역) 등이 이슈화되면서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규모있는 연계 캠페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축산자조금연합은 신선장화캠페인 일환으로 축사 주변 나무 심기, 가축 분뇨의 친환경 퇴비화 운동, 축사 소독 의무화 등 다양한 자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을 주관하게 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축산에 대한 오인지 해소에 초점을 맞춘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면, 올해는 우리 축산이 가지는 경쟁력과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 발전하는 우리 축산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축산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축산업계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며 축산분야의 적극적인 캠페인 동참을 부탁했다.

한편, 축산자조금연합은 지난해 8월 ‘축산물·축산업 인식개선 공동캠페인’을 발족, 우리축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 어린이 대상 교재 개발 및 심포지엄, 강연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5. 03. 25]